

## 아동기 외상과 데이트 폭력 피해의 관계: 유기도식과 관계중독의 이중매개효과\*

이 윤 연

장 현 아<sup>†</sup>

대전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기 외상과 데이트 폭력 피해의 관계에서 유기도식과 관계중독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D지역 소재 대학교 및 SNS를 통해 모집한 데이트 경험이 있는 미혼 남녀 40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측정도구로는 아동기 외상 질문지 단축판(CTQ-SF), 갈등 관리 척도-2(CIS-2), Young의 도식 질문지(YSQ) 및 관계중독 질문지(RAQ-30)가 사용되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적 학대와 유기도식의 성차에서 평균 차이가 났지만 효과의 크기가 작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데이트 폭력 피해에서 성차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기 외상, 데이트 폭력 피해, 유기도식, 관계중독 모두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셋째, 아동기 외상과 데이트 폭력 피해의 관계에서 유기도식과 관계중독이 이중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 그리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 아동기 외상, 데이트 폭력 피해, 유기도식, 관계중독

\* 이 논문은 이윤연(2017)의 석사학위 논문을 일부 수정, 요약한 것임.

† 교신저자 : 장현아, 대전대학교 아동교육상담학과, 대전광역시 동구 대학로 62, 응용과학관 2316호

Tel : 0422802455, E-mail : hyuna@dju.kr

이성교제란 미혼남녀가 데이트를 통해 깊은 관계를 형성하며 이성간의 기대되는 역할을 학습하여 행복한 결혼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과정이다(Levy, 1998). 이성교제는 상대를 배려하는 과정을 통해 관계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고, 이성에게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경험 속에서 안정감을 느낌으로써 좀 더 나은 자기가 되어 행복한 삶을 살아가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반면,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바로 이성교제 중 발생할 수 있는 잘못된 갈등해결방법, 그 중에서도 '데이트 폭력'이 있다(Comelius, Shorey & Beebe, 2010).

2016년 경찰청의 연도별 연인 간 폭력 현황에 따르면 2014년에 6,675건, 2015년에 7,692건으로 1년 사이에 1000건 가량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 중에서도 폭행은 40~47%, 강제추행 또는 성폭행은 6~7%로 나타났고 살인의 경우 1.3~1.6%의 수치를 보여, 데이트 폭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피해가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이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데이트 폭력의 유형과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심리적 폭력이란 소리를 지르고 비난과 욕을 하는 등의 언어적 공격 혹은 위협을 주는 비언어적 공격을 의미한다. 심리적 폭력은 외적으로 분명히 드러나지 않아 피해를 호소하기 어렵고 그만큼 피해가 오랜 기간 지속될 확률이 높다. 유선영(2000)이 여대생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심리적 폭력의 피해를 입은 사람은 49.6%였으며 최지현(2005)의 연구에서는 남녀 대학생 425명 중 300명인 70.6%, 백주현(2006)의 연구에서는 남녀 대학생 462명 중 255명인 55.08%, 하예지와 서미경(2014)의 연구에서는 20~30대

성인남녀 761명 중 758명인 88.3%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데이트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언어적·비언어적인 심리적 폭력이 만연해있음을 의미한다. 신체적 폭력이란 밀기, 물건 던지기, 때리기와 같이 상대의 신체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가할 의도를 가지고 실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대생 500명을 대상으로 한 유선영(2000)의 연구에서는 신체적 폭력에 해당되는 항목에 하나 이상 응답한 비율이 6.3%라고 하였으며, 대학생 남녀를 대상으로 한 최지현(2005)의 연구에서는 425명 중 40명인 9.4%가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였다고 하였다. 한편,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백주현(2006)의 연구에서는 462명 중 74명인 16%가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였다는 결과를 보였으며, 이은혜, 이초롱과 현명호(2009)의 연구에서는 여대생 210명 중 55명인 26.1%, 하예지, 서미경(2014)의 20~30대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761명 중 425명인 49.5%가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였다는 연구결과를 나타냈다. 위의 연구결과들을 보면 약 10~15년 전에는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10% 미만인 반면, 최근에는 16~49.5%까지 비율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성적 폭력이란 신체의 일부를 계속적으로 접촉하고자 하거나 성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를 포함한다(Straus, Hamby, McCoy, & Sugarman, 1996). 추주진(2015)의 연구에서는 남녀 대학생 818명 중 45명이 경미한 수준과 심각한 수준의 성적 폭력을 경험했음을 밝혔으며 그 외의 연구에서는 한 번이라도 성적 폭력을 경험한 사람이 22.8%~43.2%의 수준에 이른다는 결과(백주현, 2006; 이은혜 등, 2009; 하예지, 서미경, 2014)를 나타냈다. 이는 결코 적지 않은 비율이지만 성에 대한 주제를 회피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라의 사회적 특성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축소 보고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실제 데이트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적 폭력의 비율은 더 높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데이트 폭력의 높은 비율에도 불구하고 실제 연인 간에 폭력이 발생했을 때 자신이 가해자와 피해자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랑의 한 측면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로 인해 초반에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게 되고 점차 폭력의 정도가 심각해지면서 가해자는 이를 축소하고 왜곡하여 생각하고, 피해자는 두려움을 가지고 이를 합리화하여 은폐하게 된다(Gamache, 1991).

특히 피해자의 경우 데이트 폭력의 원인을 내부로 귀인하여 자신이 변화하고 노력한다면 상대의 폭력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보이며(이정은, 2007),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이 할 노력이 더 이상 없다고 느껴졌을 때에는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 갖게 되기도 한다(이화영, 2014). 데이트 폭력을 계속적으로 감내할 경우 외상사건으로 경험되어 이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을 형성하고(Levy, 1990) 이성교제에서 또 다시 실패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게 하여 이성교제 자체를 기피하거나 자기에 대한 가치를 낮게 평가하게 되기도 한다(Lilly, Howell, & Graham-Bermann, 2015). 또한 데이트 상대로부터 심리적 폭력을 지속적으로 경험한 경우에는 폭력적인 상황에 대한 기억이 침투적으로 떠오르며 위험신호에 대해 과도한 경계를 보이는 PTSD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Walker, Torkelson, Katon, & Koss, 1993; Hines & Malley-Morrison, 2001; Campbell & Kendall-Tackett, 2005). 그 외에 데이트 폭력의 피해로 인한 증상으로는 신체화, 강박, 대인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등이 있다(이정화, 2007). 남성과 여성에게서 데이트 폭력 피해에 대한 후유증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에 Hines와 Malley-Morrison(2001)은 남자의 경우 알코올 중독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여성은 PTSD와 같은 후유증을 보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Makepeace(1981)은 남성이 상대적으로 여성에 비해 심리적 후유증이 덜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여성은 남성보다 3배 강한 심리적 후유증을 보인다고 하였다.

데이트 폭력이 발생하는 원인과 관련된 변인 중 하나는 아동기 외상경험이다. Allen(1995)은 외상 중에서도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가 가장 심각한 외상이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에 경험한 학대를 아동기 외상으로 보고자한다. 아동기 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신체적 방임, 정서적 방임으로 구분된다. 신체적 학대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 부모 혹은 양육자가 아동에게 고의적으로 신체적 손상을 입히는 행동, 그리고 우발적 사고를 제외한 신체적 손상을 입힌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아동의 가치감이나 행복감(Well-being)을 저해하는 신체적 구속, 억제 혹은 감금, 언어적·정서적 위협, 기타 가학적 행위를 포함한다. 신체적 방임이란 부모 혹은 양육자가 아동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의식주, 안전, 건강 등의 양육 및 신체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정서적 방임이란 부모 혹은 양육자가 아동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사랑과 소속감, 양육과 지지 등 정서적·심리적 욕구를 제공하지 않는 행동을 의미한다. 아동기는 정체성, 정서조절 능력 등

이 형성되는 중요한 발달적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양육자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외상이 되어 성인으로 성장해가기까지 인지·정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Herman, 1992; Courtois, 2004). 심현진(2013)은 아동기에 겪은 외상이 부적절감, 자기비난 등의 내면화된 수치심을 만든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외상후 스트레스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고 불안, 우울 등의 문제를 경험하기도 한다(Yehuda, Spertus, & Golier, 2001). 성인이 되어 맺는 데이트 관계는 흔히 어린 시절 양육자와 맺었던 애착관계가 반복되는 양상(Overbeek, Vollebergh, Engles, & Meeus, 2003; Stith, Rosen, McCollum, & Thomsen, 2004)을 보이는데 서경현과 안귀여루(2007)는 아버지의 가정폭력을 경험할수록 데이트 폭력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고, 구성열(2010)은 아동기 외상을 경험할수록 단절 및 거절 도식이 강하게 형성되며, 이러한 도식이 강할수록 데이트 관계의 질이 좋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유선영(2000)은 부모에 의한 폭력을 경험한 경우 데이트 폭력의 허용도가 높아지고, 데이트 폭력의 허용도가 높을수록 데이트 폭력 피해를 또한 높아진다고 하였는데, 특히 신체적 폭력 피해의 정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나타냈다. 이렇듯 아동기에 가정폭력이나 외상사건을 경험할수록 데이트 폭력 피해의 정도도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거나 애정이 없는 양육을 받고 자란 경우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에게 거부당할 것이고 자신을 정서적으로 지지해주는 대상이 떠나갈 것 같다는 유기도식(최미정, 2009; 오남경, 이영순, 2010)이 형성되어 이후 성인기에 대상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한다. 그로

인해 중요한 대상에게 매달릴 뿐 아니라 독립을 하지 못한 채로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며 살아가게 된다(Zinner, 1976). 이는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오히려 폭력적인 상황을 자신의 탓으로 돌려 자책을 하고 자신이 노력을 하고 변화한다면 사랑을 얻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끊임없이 관계를 유지하려는 모습과 관련된다. Calvete, Corral 및 Estévez(2005)의 연구에 따르면 유기도식이 배우자의 폭력 및 문제를 회피하는 대처방식을 매개하며, 이와 비슷하게 추주진(2015)은 유기도식과 데이트 폭력 피해자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초기 부적응 도식, 특히 유기도식이 이성관계의 만족도와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갖는다는(이설아, 박기환 2013; 조현정, 2014; 김지현, 2015) 연구결과도 밝혀졌다.

한편, 성인기의 관계방식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변인이 있는데 바로 관계중독이다. 관계중독은 관계 자체에 집착하는 것으로, 그 관계가 자신에게 해가 되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인지하더라도 관계를 끊지 못한다는 것을 뜻한다(우상우, 2014). 주로 사람을 대상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이성관계에서 중독적인 특징이 두드러지며(이수현, 2009) 데이트 폭력을 감내하고 합리화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양상과 비슷하다. 서경현과 안귀여루(2007)는 데이트 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이 관계에 깊이 개입되어 있으며 폭력적인 관계를 지속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혜원(2016)은 데이트 폭력 피해를 경험할수록 폭력적인 관계가 자신에게 해가 되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관계단절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관계에 집착을 보이는 사람은 관계 속의 고통보다 혼자 남겨지는 두려움이 더욱 크기 때문에(이수현, 2009) 불안정한 관계를

지속하며 결국 끊임없는 우울과 불안, 분노를 느끼게 될 뿐 아니라(Schaeffer & McElhny, 1997; Bruce & Nellie, 2002) 상대에게 강박적으로 의존함으로써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게 된다(박연주, 2008).

관계중독인 사람은 아동기에 학대적이고 애정이 부족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했을 가능성(Pearson, 1991)이 있다는 점에서 유기도식과 유사한 점이 있다. Bartholomew와 Horowitz(1991)는 관계중독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유기에 대한 불안이 있어 관계가 멀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활성화된 유기도식은 버림받는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관계를 맺는 대상에게 매달리고 집착하는 관계중독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이하람, 2016), 한진주(2007)는 어린 시절 양육자로부터 버림받은 경험이 있을 경우, 이후 관계를 필사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관계중독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상우(2014)는 양육자로부터 버림받은 경험이 이후 관계에서 거절당하고 유기될 것에 대한 불안함으로 연결되고 최종적으로 관계중독이 형성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관계중독을 경험하는 이들에게 유기도식이 형성되어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국내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데이트 폭력 허용도, 성 고정관념, 투자모델, 음주, 정신병적 성향 등(서경현, 이경순, 2002; 김옥수, 2005; 이정은, 2007; 서경현, 2008; 강효진, 박기환, 2013; 최윤경, 송원경, 2014; 박경민, 2015) 데이트 폭력 피해를 야기시키는 변인에 대한 연구가 있으며, 성장글쓰기, 심리적 후유증, 피해자 보호방안 등(이정화, 2007; 류병관, 2014; 홍혜인, 2015)과 같은 데이트 폭력 피해 이후의 영향

과 관련된 연구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데이트 폭력 피해자에게 어떤 관계적인 특징이 있으며 이러한 관계특징이 어떻게 데이트 폭력 피해를 유지시키는지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 경험과 데이트 폭력 피해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유기도식과 관계중독이 이중매개하여 데이트 폭력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데이트 폭력에 대해 성차가 없다는 연구(김예정, 김득성, 1993; 신혜섭, 양혜원, 2005; 서경현, 2009; 주지현, 2014; Antonio & Hokoda, 2009), 여성이 데이트 폭력 피해가 더 높다는 연구(서경현, 2001; Levy, 1990; Hird, 2000), 남성이 데이트 폭력 피해가 더 높다는 연구 등(김정란, 김경신, 1999; 김보라, 정혜정, 2009; Gray & Foshee, 1997) 연구결과가 일관되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 폭력 피해에 대한 성차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설정한 경쟁모형과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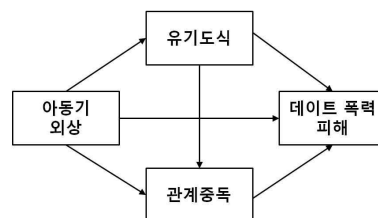


그림 1. 경쟁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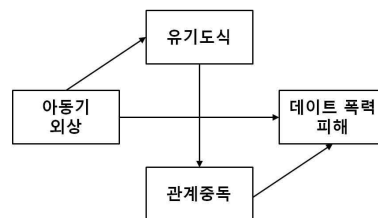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

## 방 법

###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데이트 경험이 있는 성인기 미혼 남녀 40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은 D시 소재 대학교 수업 시간 및 구글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모집하였다. 총 434명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 중 반응 누락이나 무작위 반응 등으로 인해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25명의 자료를 제외한 409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최종분석을 하였다. 성별은 여성 220명(53.8%), 남자 189명(46.2%)로 나타났고 연령은 20~24세 183명(44.7%), 25~29세 178명(43.5%), 20~34세 24명(5.9%), 35세 이상 24(5.9%)로 나타났다. 직업은 대학생 254명(62.1%), 직장인 96명(23.5%), 대학원생 40명(9.8%), 기타 19명(4.6%)로 나타났다.

### 측정 도구

#### 아동기 외상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에 경험한 외상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Bernstein과 Fink(1998)가 개발한 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를 이유경(2006)이 번안하고, 김은정, 김진숙(2010)이 타당화한 아동기 외상 질문지 단축판(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Short Form: CTQ-SF)을 사용하였다. 각 하위문항은 각 5문항씩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예로는 “내가 듣기 싫은 별명으로 부르곤 했다”, “세계 맞아 명이나 상처를 입은 적이 있다.” 등이 있다. ‘전혀 없음 (1점)’부터 ‘자주 있음 (4점)’까지 4점 리커트 척도상에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기 학대나 방임의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김은정, 김진숙(2010)의 연구에서 CTQ-SF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89였으며, 본 연구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 또한 .89로 나타났다.

#### 데이트 폭력 피해

데이트 폭력을 측정하기 위해 Gelles와 Straus(1990)이 개발한 갈등 관리 척도1(CTS-1)을 Straus 등(1996)이 CTS2(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로 개정하였고, 김정란(1999)이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연인 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가해’ 입장에서 자신의 심리적 폭력을 측정하는 11개 문항, 신체적 폭력행동을 측정하는 7개 문항, 성적 폭력행동을 측정하는 4개 문항과 ‘피해’ 입장에서 자신의 심리적 폭력을 측정하는 11개 문항, 신체적 폭력행동을 측정하는 7개 문항, 성적 폭력행동을 측정하는 4개 문항으로 총 44개 문항이다. 문항의 예로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은 적이 있다”, “괴롭히기 위해 악의에 찬 말을 한 적이 있다” 등이 있다. 각 하위문항은 ‘없음 (1점)’부터 ‘매우 자주 (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상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폭력경험이 심각한 수준임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피해자의 입장만을 연구하고자 하기 때문에 ‘피해’ 입장에 해당하는 22개 문항만 사용하였다. 김정란(1999) 연구에서 피해-전체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7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89로 나타났다.

#### 유기도식

Young(1990)이 초기부적응도식 16개를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205문항을 조성호(2001)가 번안한 것으로 이 중 유기도식 18문항을 사용

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건강에 문제가 없는데도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 안가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결국 나는 혼자가 될 것 같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거의 아니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6점)’까지 6점 리커트 척도상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모든 문항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거절당하여 버림받을 것 같은 특성에 대한 진술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기도식의 특성이 더 잘 드러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설아, 박기환(2013)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95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 또한 .95로 나타났다.

#### 관계중독

관계중독질문지는 Susan(2011)이 관계중독을 경험하는 개인을 감별하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우(2014)가 번역작업을 거친 국내판 관계중독 질문지-30문항(RAQ-30)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너무 빨리 그리고 쉽게 사랑에 빠진다”, “나는 사랑하고 있지 않을 때면 외로워서 어쩔 줄 몰라 한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4점)’까지 4점 리커트 척도상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중독 성향이 높음을 나타낸다. 이상우(2014)의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91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 또한 .91로 나타났다.

####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아동기 외상, 데이트 폭력 피해, 유기도식, 관계중독 간의 성차와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SPSS 19.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모형 적합도와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AMO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 결 과

### 아동기 외상, 유기도식, 관계중독 및 데이트 폭력 피해의 성차

변인들의 성차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고 효과의 크기를 확인하기 위해 Cohen's  $d$  검증방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표본의 크기가 크면 귀무가설이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을 보인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Cohen's  $d$  검증방법을 사용하였다. Cohen(1988)에 의하면  $d$ 값이 .20 이하면 작은 효과크기, .50 이하면 중간정도의 효과크기, .80 이상이면 큰 효과크기로 구분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의 하위변인인 정서적 학대( $t=-5.02, p<.001$ )와 유기도식( $t=-4.44, p<.001$ )에서 여자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d$ 값은 최대 .23으로 효과의 크기가 작은 쪽에 가까워 각 변인의 실제 성차가 주목해야 할 정도는 아님을 알 수 있다.

### 상관분석

아동기 외상, 데이트 폭력 피해, 유기도식, 관계중독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기 외상, 데이트 폭력 피해, 유기도식, 관계중독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아동기

표 1. 아동기 외상, 유기도식, 관계중독 및 데이트 폭력 피해의 성차

변인	남자=189 M(SD)	여자=220 M(SD)	t	d
아동기 외상	27.81(7.99)	29.36(9.08)	-1.78	0.08
신체적 학대	6.35(2.45)	6.21(1.92)	0.61	0.03
정서적 학대	6.20(2.00)	7.45(2.99)	-5.02***	0.23
신체적 방임	7.03(2.11)	7.06(2.26)	-0.14	0.00
정서적 방임	8.22(3.87)	8.62(3.95)	-1.03	0.05
데이트 폭력 피해	27.95(5.28)	28.57(8.97)	-0.86	0.04
심리적 폭력	16.10(4.06)	16.45(6.46)	-0.66	0.03
신체적 폭력	7.64(1.45)	7.64(1.89)	0.02	0.00
성적 폭력	4.21(0.75)	4.50(1.80)	-2.19	0.10
유기도식	35.39(15.66)	43.06(19.21)	-4.44***	0.21
관계중독	58.65(12.39)	58.21(13.11)	0.34	0.01

\*\*\*  $p < .001$

표 2. 아동기 외상, 유기도식, 관계중독 및 데이트 폭력 피해의 상관관계

	아동기 외상	신체 학대	정서 학대	신체 방임	정서 방임	데이트 폭력 피해	심리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유기 도식	관계 중독
아동기 외상											
신체학대	.68**										
정서학대	.79**	.48**									
신체방임	.73**	.35**	.46**								
정서방임	.86**	.40**	.55**	.53**							
데이트 폭력 피해	.33**	.20**	.26**	.22**	.26**						
심리적 폭력	.29**	.17**	.23**	.19**	.22**	.95**					
신체적 폭력	.25**	.14**	.16**	.16**	.21**	.76**	.58**				
성적 폭력	.34**	.21**	.27**	.20**	.24**	.66**	.47**	.56**			
유기도식	.41**	.22**	.38**	.30**	.20**	.24**	.26**	.18**	.28**		
관계중독	.23**	.15**	.19**	.22**	.16**	.26**	.25**	.19**	.20**	.60**	

\*\*  $p < .01$



외상의 경우 유기도식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r=.41, p<.01$ ) 데이트 폭력 피해의 경우 아동기 외상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r=.33, p<.01$ ). 또한 유기도식의 경우 아동기 외상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r=.41, p<.01$ ) 관계중독의 경우 유기도식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r=.60, p<.01$ ).

### 측정모형의 검증

본 연구의 측정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유기도식과 관계중독의 경우 Russell, Kahn, Spoth와 Altmaire (1998)이 제안한 방법에 따라 개별 문항의 수를 고르게 반영하여 평균값을 생성한 후 구성개념 추정에 쓰이는 문항꾸러미(Parcel)를 3요인으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CFI와 TLI는 0.9 이상, RMSEA의 경우 .05 이하일 때 좋은 적합도의 이상적 기준이며, RMSEA는 .08 이하일 때 괜찮은 적합도, .10 이하일 때 보통 적합도, .10 이상일 때 나쁜 적합도를 나타낸다(Browne, Cudeck, 1993). 이러한 근거로 본 연구결과를 살펴봤을 때, 경쟁모형은  $\chi^2=131.523(df=59, p<.001)$ , TLI=.96, CFI=.97, RMSEA=.05로 모형 적합도의 이상적 기준을 충족하였으며 연구모형 또한  $\chi^2=133.800(df=61, p<.001)$ , TLI=.97, CFI=.97, RMSEA=.05로 모형 적합도의 이상적 기준을 충족하였다. 이 중 설명력이 높고 간결한 모형을 선택하기 위해  $\chi^2$ 검증을 통하여

모형을 비교하였다. 홍세희(2001)는 두 모형에서의 차이가 유의미하면 자유도가 작은 모형을 선택하고  $\chi^2$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다면 자유도가 더 큰 모형을 선택한다고 했다. 따라서 연구모형( $df=59<df=61$ )의 설명력이 높고 간결하기 때문에 최종모형으로 채택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모형에 대한 검증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 이중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모형의 각 경로계수들을 살펴본 결과 아동기 외상에서 관계중독으로 가는 경로, 유기도식에서 데이트 폭력 피해로 가는 경로를 제외한 모든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기 외상은 데이트 폭력 피해와 유기도식으로 가는 경로는 정적으로 유의미한 결과( $B=.247, p<.001; B=18.904, p<.001$ )가 나타났지만 관계중독으로 가는 경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1.205, n.s$ ). 유기도식은 관계중독으로 가는 경로는 정적으로 유의미한 결과( $B=.473, p<.001$ )가 나타났지만 데이트 폭력 피해로 가는 경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000, n.s$ ). 관계중독은 데이트 폭력 피해로 가는 경로가 정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B=.012, p<.001$ ).

간접효과의 Bootstrap을 검증한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Bootstrap 결과 해석 시 하한계

표 3. 측정모형의 적합도

	$\chi^2$	df	TLI	CFI	RMSEA
측정모형	133.800	61	.97	.97	.05

표 4. 아동기 외상, 유기도식, 관계중독 및 데이트 폭력 피해의 경로계수

	경로	B	SE	$\beta$	C.R
1	아동기 외상 → 데이트 폭력 피해	.247	.087	.246	2.842**
2	아동기 외상 → 유기도식	18.904	2.782	.483	6.795***
3	아동기 외상 → 관계중독	-1.205	1.604	-.043	-.751
4	유기도식 → 데이트 폭력 피해	.000	.002	.005	.058
5	유기도식 → 관계중독	.473	.039	.666	12.139***
6	관계중독 → 데이트 폭력 피해	.012	.003	.327	3.781***

\*\* $p < .01$ , \*\*\* $p < .001$

표 5. 간접효과의 Bootstrap 검증

	경로	간접효과	95% 신뢰구간	
			하한계	상한계
1	아동기 외상 → 유기도식 → 데이트 폭력 피해	.003	-.100	.087
2	아동기 외상 → 관계중독 → 데이트 폭력 피해	-.014	-.071	.023
3	아동기 외상 → 유기도식 → 관계중독 → 데이트 폭력 피해	.106**	.047	.192

\*\* $p < .01$

(lower)와 상한계(upper) 사이에 0이 없을 경우 간접효과가 유의미한 결과라고 한다(Bollen & Stine, 1992). 이를 토대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기 외상이 유기도식을 매개로 데이트 폭력 피해에 영향을 주는 간접효과가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나 간접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0, .087). 또한 아동기 외상이 관계중독을 매개로 데이트 폭력 피해에 영향을 주는 간접효과도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나 간접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071, .023). 반면, 아동기 외상이 유기도식과 관계중독을 이중매개 하여 데이트 폭력 피해에는 영향을 주는 간접효과가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간접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047, .192).

## 논 의

본 연구는 데이트 경험이 있는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아동기 외상과 데이트 폭력 피해의 관계에서 유기도식, 관계중독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주요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변인 간 성차를 살펴본 결과 아동기 외상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확대와 유기도식에서 평균 차이가 났지만 효과의 크기는 작아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데이

트 폭력 피해에서 성차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데이트 폭력 가해의 비율에서 성차가 없었다는 선행연구(김예정, 김득성, 1993; 신혜섭, 양혜원, 2005; 서경현, 2009)와 맥을 같이한다. 일반적으로 가해자는 남성, 피해자는 여성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사회에서 남성에게는 적극적이고 강하며 진취적인 성역할을 기대하고 여성에게는 소극적이고 연약하며 의존적인 성역할을 기대하는(김은주, 1997) 태도가 어린 시절부터 부과되기 때문에 남성은 가해자, 여성은 피해자라는 인식이 자리 잡힌 것이다(박경민, 2015). 그러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는 남녀간의 데이트폭력 피해 정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아동기 외상과 데이트 폭력 피해의 관계에서 유기도식을 매개하는 경로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기부적응도식이 강하게 자리 잡혀 있을수록 이성 관계에 만족도와 데이트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구성열, 2010; 이설아, 박기환, 2013)와 불일치하며 유기도식이 포함된 단절 및 거절 도식이 데이트 폭력 피해 경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 추주진(2015)의 연구와도 다른 결과이다. 반면 유기도식이 포함되어 있는 단절 및 거절 도식이 이성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친다는 임하라(2014)의 연구결과와는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단절 및 거절 도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중요한 대상으로부터 버림받아 자신의 정체성이 상실될 것 같은 불안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고 친밀한 관계를 회피한다. 의미 있는 대상, 의미 있는 관계와 감정적인 교류가 오가는 상황에서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이 나타나는데(홍

혜인, 2015) 데이트 관계가 이에 해당한다. 데이트 관계 속에서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데이트 관계 자체를 회피하거나 데이트 관계를 맺더라도 자신의 감정을 은폐한다거나 관계를 맺는 상대를 신뢰하지 못하는 양상을 보인다(Descutner & Thelen, 1991). 즉, 유기도식이 아동기 외상과 데이트 폭력 피해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 투입될 때에는 친밀감 두려움이 작용하여 긴밀하고 친밀한 데이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해 데이트 폭력 피해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유기도식의 문항인 '때로는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날 것 같은 걱정을 떨치지 못해 아예 내가 그들을 먼저 멀리해 버리고는 한다.',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그들이 항상 그래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 '항상 내 곁에 있어줄 것이라는 믿음이가지 않기 때문에 사람과 진정으로 친해지기가 어렵다.', '내 인생에서 중요했던 사람들은 늘 옆에 있어주기 보다는 왔다가 그냥 떠나가 버리곤 했던 것 같다.'가 이에 대한 결과를 뒷받침해준다.

셋째, 아동기 외상과 데이트 폭력 피해의 관계에서 관계중독을 매개하는 경로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중독이 데이트 폭력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관계중독을 경험하는 사람일수록 이성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무의식적으로 수용하고 그 관계에 의존한다는 연구결과(Pearson, 1991)와 일치한다. 또한 폭력적인 관계가 자신에게 해가됨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고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관계를 단절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느낀다는 연구결과(이혜원, 2016) 및 관계중독을 경험할수록 데이트 폭력 피해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

(Halpern, 1994; 장시은, 2015)와도 일치도 일치하는 바이다.

넷째, 아동기 외상이 유기도식과 관계중독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데이트 폭력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아동기 외상이 유기도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유기도식은 관계중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유기도식의 영향을 받은 관계중독은 데이트 폭력 피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기 외상이 유기도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아동기 외상 경험이 유기도식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Young, 1990; Cukor & McGinn, 2006; Muris, 2006; 김미란, 2002; 황세희, 2006; 최미정, 2009; 차미영, 2010; 이수지, 2013; 오남경, 이영순, 2015)를 지지하는 결과이며, 생애초기 양육자에게 버려지는 듯한 경험으로 인해 유기도식이 형성된다는 선행연구(우상우, 2014)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유기도식이 관계중독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부적응적인 정서조절이 매개하여 유기불안이 관계중독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하람(2016)의 연구와 부정적인 또래관계의 경험이 유기도식을 확장시켜 관계중독에 영향을 준다는 우상우(2014)의 연구와도 맥을 같이한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 결과를 살펴봤을 때, 아동기 외상이 유기도식에 영향을 미치고, 유기도식이 다시 관계중독에 영향을 미쳐 데이트 폭력 피해와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가설이 지지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동기 외상경험으로 인해 자신은 사랑받을 수 없고 언젠가 사람들이 자신을 버리고 떠날 것이라는 유기도식을 형성한 후 자신에게 해가 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계속적으로 맺고자 하는 관계중독으로 이어지면

최종적으로 폭력적인 관계를 단절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합하여 살펴보면, 유기도식만으로는 아동기 외상과 데이트 폭력 피해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나타내지 않지만 유기도식과 관계중독이 함께 작용함으로써 아동기 외상과 데이트 폭력 피해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신이 중요한 대상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라는 유기도식이 관계에 중독적인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데이트 폭력 피해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데이트 폭력 피해자에게 유기도식이 기반되어 있는 관계중독이 자리 잡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할 때, 내담자에게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돕고 상대방에게 의존, 집착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겠다(한진주, 2007). 또한 관계중독을 경험하는 이들은 관계하는 대상의 긍정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왜곡하여 상대의 단점을 보지 않으려 하지 않는다는 특성(우상우, 2014; Martin, 1994; Whiteman & Petersen, 2004)이 있기 때문에 관계를 맺는 상대의 장점과 단점을 통합할 수 있도록 하여 폭력적인 관계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한편, 관계중독을 일으키는 유기도식은 유아기 드라마의 재연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어린 시절 양육자로부터 충족되지 못한 정서적인 지지, 애정을 현재 관계를 맺는 상대방에게 충족 받고자 하는 형태로 나타난다(Archibald, 1997). 따라서 내담자에게 아동기의 외상 경험이 현재에도 반복되고 있음을 인지하도록 돕고 유기도식을

활성화 시키는 사건이 실제적인 것인지, 혹은 두려움이 만들어낸 것인지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겠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데이트 폭력 피해는 일반적으로 여성이 경험한다는 인식이 강한데, 본 연구에서 성차가 없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남성은 가해자, 여성은 피해자라는 인식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둘째, 기존의 데이트 폭력 피해에 대한 연구는 피해를 야기하는 변인에 관련되거나 피해를 입은 이후의 영향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의 관계 패턴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유기도식만으로는 데이트 폭력 피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유기도식이 관계중독으로 연결될 때에만 데이트 폭력 피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데이트 폭력 피해와 관련 있는 관계 특성에 대한 변인을 순차적으로 투입하여 모형을 검증하였고, 자신이 버림받을 것이라는 유기도식으로 인해 자신에게 해가 되는 관계임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단절하지 못하는 관계중독에 영향을 미쳐 데이트 폭력 피해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밝혔다. 아동기 외상과 데이트 폭력 피해의 관계에서 유기도식과 관계중독이 이중매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데이트 폭력의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내담자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확보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자기보고식이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상황과 같은 요인 등에 영향을 받아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관

찰이나 실험 등과 같은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겠다. 둘째, 아동기 외상의 설문은 만 18세 이전의 경험을 회상하여 응답하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가 부정적인 질문에 대해 자신을 방어하거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했을 가능성뿐 아니라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 또한 있다. 그러므로 인터뷰 등을 통해 보다 심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 경험과 데이트 폭력 피해의 경험이 거의 없는 경우도 함께 표집되어 데이트 폭력 피해를 경험하는 모든 대상에게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을 경험했거나 데이트 폭력 피해를 경험한 대상만 따로 표집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 참고문헌

- 강효진, 박기환 (2013). 데이트 폭력피해의 위험요인 및 관계지속요인. *한국범죄심리학 연구*, 9(3), 27-54.
- 구성열 (2010). 아동기 외상경험이 데이트 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심리도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란 (2002). 대학생 교우관계의 사례분석: 대상관계이론의 유기불안 관점에서.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보라, 정혜정 (2009). 대학생이 지각한 원가족 경험과 자아존중감 및 데이트 폭력의 관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2), 49-75
- 김예정, 김득성 (1993). 지속적인 이성교제에서의 갈등표출행동: 대학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1(2), 127-139.

- 김옥수 (2005). 가정폭력 경험과 데이트폭력 허용도가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피해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정, 김진숙 (2010). 아동기 외상과 초기 성인이 우울수준과의 관계: 초기부적응도식과 정서표현양가성 및 회피대처방식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3), 605-630.
- 김은주 (1997). 성폭력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 조사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란 (1999). 대학생의 이성교제 중 폭력과 대처 행동.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란, 김경신 (1999). 대학생의 이성교제 중 폭력과 대처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7(8), 73-90
- 김지현 (2015). 초기부적응도식과 이성관계만족의 관계에서 갈등해결전략의 조절효과. 광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경찰청 (2016). <http://www.police.go.kr/portal/bbs/view.do?bbsId=B0000011 & nttId=18111& menu No=200067>.
- 류병관 (2014). 데이트폭력에 있어 피해자 보호방안. 법학연구, 22(3), 95.
- 박경민 (2015). 남녀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에 대한 허용도 차이 -가해자, 피해자 입장 전환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연주 (2008). 성인의 애착과 낮은 자존감이 관계중독에 미치는 영향: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주현 (2006). 대학생의 인구 통계적 변수, 데이트 관련변수 및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데이트 폭력 경험의 차이.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경현 (2008). 공격적 데이트 폭력 피해여성의 분노 및 분노표현, 정신병적 경향성, 중독성과 대처방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2), 21-39.
- 서경현 (2009). 이성관계에서 행해지는 데이트 폭력에 관한 연구의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1), 699-727.
- 서경현, 안귀여루 (2007). 데이트 폭력의 공격적 피해여성들의 특성과 연인관계에 대한 개입.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3(2), 77-96.
- 서경현, 이경순(2002). 여대생의 음주와 데이트 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에 대한 탐색. 대한여성건강학회: 여성건강, 4(2), 29-48.
- 신혜섭, 양혜원 (2005). 청소년 초기의 이성친구에 대한 신체적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청소년학연구, 12(1), 299-323.
- 심현진 (2013). 아동기 외상경험과 대학생의 사회불안의 관계: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남경, 이영순 (2010). 부모-자녀결함 형태와 분리개별화 및 대인관계문제의 관계. 한국상담학회 연차학술대회 학술논문집 포스터 발표 논문, 604-608.
- 오남경, 이영순 (2015) 유기불안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4), 905-929.
- 우상우 (2014). 관계중독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이론적 모형개발.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선영 (2000). 여대생의 가정폭력 피해와 이성교제폭력 피해간의 매개요인에 관한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설아, 박기환 (2013). 유기 도식과 이성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 13(1), 1-17.
- 이수지 (2013). 여자 대학생의 아동기 외상 경험과 성인기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 간의 관계: 초기 부적응 도식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현 (2009). 여대생의 대인불안, 대인관계유형, 낭만적 애착유형과 관계중독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유경 (2006). 여대생의 아동기 외상경험이 심리적 증상과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혜, 이초롱, 현명호 (2009). 데이트 폭력 관계를 유지시키는 요인으로서 용서: 투자모델에 대하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2), 385-403.
- 이정은 (2007). 폭력적 데이트 관계 지속에 관한 투자모델의 타당성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화 (2007). 데이트폭력의 심리적 후유증.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하람 (2016). 유기불안이 관계중독에 미치는 영향: 부적응적 정서조절방략의 매개효과.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원 (2016). 미혼여성의 데이트 폭력 경험과 대인관계 문제, 우울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화영 (2014).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관계 중단 과정에 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하라 (2014). 지각된 부모의 부부갈등이 이성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초기 부적응도식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시은 (2015). 관계중독, 자기 및 타인용서가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 *삼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성호 (2001). 한국판 도식질문지의 요인구조.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 13(1), 177-192.
- 조현정 (2014).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과 초기 성인기 이성관계 만족도 간의 관계: 초기부적응도식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7(1), 33-53.
- 주지현 (2014). 부모애착, 이성관계 집착 및 데이트 폭력 간의 관계. *삼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미영 (2010). 아동기 외상과 초기 성인기 대인관계 문제 간의 관계에서 초기부적응도식의 매개효과.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추주진 (2015). 데이트 폭력 경험과 초기 부적응도식 및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간의 관계.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미정 (2009). 아동기 학대경험과 우울 및 불안의 관계: 초기부적응도식의 매개효과.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윤경, 송원영 (2014). 여대생의 가정폭력경험이 데이트폭력 피해에 미치는 영향: 명시적 암묵적 성 고정관념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9(4), 433-446
- 최지현 (2005). 아동기 가정폭력경험이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하예지, 서미경 (2014). 데이트 폭력 인식과 폭

- 력경험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30(4), 79-103.
- 한진주 (2007). 어린 시절 경험과 관계중독의 패턴연구: 에니어그램과 대상관계 이론적 접근. *에니어그램 연구*, 4(2), 135-161.
- 홍세희 (2001).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9
- 홍혜인 (2015). 성장글쓰기가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기본 세계관과 친밀감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세희 (2006). 섭식장애, 유기도식 수준 및 유기 단서의 식역하 노출이 섭식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llen, J. G. (1995). *Coping with trauma: A guide to self-understanding*.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 Antonio, T., & Hokoda, A. (2009). Gender Variations in dating violence and positive conflict resolution among Mexican adolescents. *Violence and Victims*, 24(4), 533-545.
- Archibald, D. Hart. (1997). *Healing Life's Hidden Addictions*. 윤귀남 역(1997). 숨겨진 중독. 서울: 참미디어.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2), 226.
- Berstein, D. P. & Fink, L. (1998). *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a retrospective self-report manual*. San Antonio, TX: The psychological Corporation.
- Bollen, K. A., & Stine, R. A. (1992). Bootstrapping goodness-of-fit measur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1(2), 205-229.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age focus editions*, 154, 136-136.
- Bruce, L., & Nellie, L., (2002). *Christian counselling and family therapy*. 정동섭, 정성준 역(2005). 기독교 상담과 가족치료. 서울: 예수전도단.
- Calvete, E., Corral, S., & Estévez, A. (2005). Desarrollo de un inventario para evaluar el abuso psicológico en las relaciones de pareja [Development of an inventory to assess psychological abuse among people living together]. *Clínica y Salud*, 16(3), 203.
- Campbell, J. C., & Kendall-Tackett, K. A. (2005). Intimate partner violence: Implications for women's physical and mental health. *Handbook of women, stress and trauma*, 123-140.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A computer program*. Lawrence Erlbaum.
- Cornelius, T. L., Shorey, R. C., & Beebe, S. M. (2010). Self-reported communication variables and dating violence: Using Gottman's marital communication conceptualization. *Journal of Family Violence*, 25(4), 439-448.
- Courtois, C. A. (2004). Complex trauma, complex reactions: Assessment and treatment.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41(4), 412-425.
- Cukor, D., & McGinn, L. K. (2006). History of child abuse and severity of adult depression: The mediating role of cognitive schema. *Journal of Child Sexual Abuse*, 15(3), 19-34.



- Descutner, C. J., & Thelen, M. H. (1991).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Fear-of Intimacy scale. *Psychological Assessment: A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2), 218-225.
- Gamache, D. (1991). *Domination and control: The social context of dating violence*. In BarrieLevy (Eds.), *Dating violence*, WA: SealPress.
- Gelles, R. J. & Straus, M. A. (1990). *Intimate violence: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abuse in the American family*.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Gray, H. M., & Foshee, V. (1997). Adolescent dating violence differences between one-sided and mutually violent profil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2(1), 126-141.
- Halpern, H. M. (1994). *Finally Getting It Right*. New York: NY: Bantam Books.
- Herman, J. L. (1992). Complex PTSD: A syndrome in survivors of prolonged and repeated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5(3), 377-391.
- Hines, D. A., & Malley-Morrison, K. (2001). *Effect of emotional abuse against men in intimate relationships*. Manuscript in preparation.
- Levy, B. (1990). Abusive teen dating relationship: An emerging issue for the 1990s. *Response Victim. Women Child*, 13(1), 3-12.
- Lilly, M. M., Howell, K. H., & Graham-Bermann, S. (2015). World assumptions, religiosity and PTSD in survivor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Violence Against Women*, 21(1), 87-104.
- Makepeace, J. M. (1981). Courtship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Family Relations*, 30, 97-102.
- Martin, G. (1994). *When Good Things Become Addictions*, 임금선 역 (1994). *좋은 것도 중독이 될 수 있다*. 서울: 생명의 말씀사.
- Muris, P. (2006). Maladaptive schemas in non-clinical adolescents: Relations to perceived parental rearing behaviors, big five personality factors and psychological symptoms.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13(6), 405-413.
- Overbeek, G., Vollebergh, W., Engels, R. C., & Meeus, W. (2003). Young adults' relationship transitions and the incidence of mental disorders.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38(12), 669-676.
- Pearson, J. (1991). Relationship dependent women: Their views on symptoms and recovery. *Virginia Counselors Journal*, 19, 3-13.
- Russell, D. W., Kahn, J. H., Spoth, R.,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1), 18.
- Schaeffer, B., & McElhny, K. (1997). *Is it love or is it addiction?* Center City, Minnesota: Hazelden.
- Straus, M., Hamby, S., Boney-McCoy, & Sugarman, D. (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CTS2). *Journal of Family*, 17(3), 283-316.
- Susan, P. (2011). *Addiction to Love*. Random house, Inc. New York.
- Walker, E. A., Torkelson, N., Katon, W. J., & Koss, M. P. (1993). The prevalence rate of sexual trauma in a primary care clinic. *The Journal of the American Board of Family Practice / American Board of Family Practice*, 6(5),

- 465-471.
- Whiteman, T. & Petersen, R. (2004). *Victim of love?: How you can break the cycle of bad relationships*. 김인화 역(2004). 사랑이라는 이름의 중독. 국제제자훈련원. 75-100, 150-151.
- Yehuda, R., Halligan, S. L., & Grossman, R. (2001). Childhood trauma and risk for PTSD: relationship to intergenerational effects of trauma, parental PTSD and cortisol excreti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7, 733-753.
- Young, J. E. (1990). *Cognitive Therapy of personality disorders: A schema-focused approach*. Sarasota, FL: Professional Resource Press.
- Zinner, J. (1976). *The Implications of Projective Identification for Marital Interaction*. In H. Grunebaum & J. Christ(Eds.), *Contemporary Marriage: Structure, Dynamics, and Therapy*. Boston: Little, Brown.
- 1차원고접수 : 2017. 04. 25.  
심사통과접수 : 2017. 06. 13.  
최종원고접수 : 2017. 06. 19.

##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Trauma and Dating Violence Victimization: Dual Mediating Effects of Abandonment Schema and Relationship Addiction

Yun Yeon Lee

Hyun A Chang

Daejeo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dual mediating effects of abandonment schema and relationship addi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trauma and dating violence victimization. For this purpose, 409 unmarried men and women with dating experiences were surveyed. They received questionnaires to measure their 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Short Form(CTQ-SF), Conflict Tactics Scale-2(CTS-2), Young Schema Questionnaire(YSQ) and Relationship addiction Questionnaire-30(RAQ-30). SPSS 19.0 and Amos 22.0 were used for all statistical analyse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n average difference in gender differences between emotional abuse and abandonment schema. However, it was not significant because the effect size was small. Also, gender differences were not significant in dating violence victimization. Second,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among childhood trauma, dating violence victimization, abandonment schema, relationship addiction. Thir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trauma and dating violence victimization, abandonment schema and relationship addiction were found to be dual mediated. Based on these result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research were suggested.

*Key words* : *Childhood trauma, Dating violence Victimization, Abandonment Schema, Relationship Addiction*